

곡성군, 청년인구 유입책 38개 확정 인구소멸 대응

곡성형 유학마을 조성 등 지역인재 양성·거점 환경

곡성군이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청년 유입을 촉진 하기 위한 38개 사업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실과장,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용역 최종 보고회 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곡성군은 지난 2월부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행정,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3년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행복한 곡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인구활력 증진·지역일자리 창출·지역인재 양성·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전전략을 세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러스틱다운 고도화사업, 곡성형 유학마을 조성 등 38개의 핵심·중점 사업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



곡성군이 최근 인구감소대응 기본 시행계획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곡성군 제공

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뿐 아니라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인프라

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축사지붕 열차단체 지원 함평군, 농가 30곳 대상

함평군이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폭염 시작 전 6월 안에 축산농가 30곳에 축사 지붕 열차단체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열 차단체를 지붕에 도포해 축사 내 열기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열 차단체를 도포한 축사는 내부 온도가 2~3도 가량 내려가 폭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에 취약한 축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제도 공급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28일까지 농업실태조사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28일까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양군 농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농업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 최초 '담양군 농업실태조사'를 개발했으며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다.

표본 농업인 1008명을 대상으로 오는 9~28일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작물별 재배면적, 경지면적, 농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수집된 조사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조진용 기자



장성군 "과수 돌발해충 물렸거라" 장성군이 오는 10일까지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돌발해충은 과일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데다 배설물까지 분비해 수확물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군 과수 돌발해충 방제대책협의회에서 선정한 약제를 공급하는 등 '공동방제의 날' 운영에 들어갔다. 장성군 제공

농업인 스마트강소교육생 모집 담양군, 15일까지

담양군이 '스마트강소농' 육성에 나섰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스마트강소농이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담양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스마트강소농 육성' 시범 시군 가운데 하나로 딸기 품목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하게 된다. 오는 1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7회 68시간을 스마트 농업기술과 경영, 농산물마케팅 교육과 지능형 농장 맞춤 상담 등을 교육한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며 관내 스마트 농업 딸기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061-380-3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하절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하·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과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로 진행된다.

점검은 도장·도금업체 등 악성폐수 배출사업장(6월), 광역상수원 상류 하·폐수배출사업장(6~7월), 휴가철 캠핑장(8월)을 대상으로 한다.

수질오염 우려지역 순찰은 여수국가산단 등 광주·전남 소재 7개 주요 산단과 주암댐 등 6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하여 드론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6월~8월 매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내 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영재 환경감시단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시설 관리부실 및 불법행위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 하절기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곡성 자매가' 최미라 대표, 3대째 전통한과 맥 이으며 소득창출

유과·김부각·토란떡파이 제품

곡성에서 전통한과로 '농산물 2차가공형 소득모델'을 구축하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매가 있다.

'곡성 자매가' 최미라(45) 대표는 네째 동생과 함께 20년 만에 고향 죽곡으로 내려와 3대째 전통방식 그대로 숯불에 구워 만든 전통한과의 맥을 잇고 있다. 현재 숯불향과 유과, 김부각, 토란떡파이 등 3가지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연 매출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숯불향과 유과는 숯불에 향을 입혔다는 뜻으로 자매가의 대표 브랜드다. 일반적인 유통처리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손으로 숯불에 구워낸 제품이다. 김부각과



최미라(오른쪽) 대표와 동생.

토란떡파이도 수작업으로 만들어 낸 간식과 식사 대용이다. 김부각은 진도 김과 곡성 찹쌀을 이용해 바삭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기호성 제품으로 매주 목요일만 사전 예약제로 팔고 있다.

두 자매는 식품제조가공장을 지은 뒤 농촌정착형 소득모델을 고민하다 지난

2018년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에 등록했다.

강소농 농업경영개선 교육을 비롯해 e-비즈니스, 마케팅, 명품대학 등 교육에 참여하며 전남농업기술원 강소농 컨설턴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꿈을 이뤘다. 시장분석과 제품 유통 등을 분석하고 차별화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원가·품질·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결과다.

최미라 대표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제품 품질향상에 매진하고 있다"며 "2차가공과 매실 과수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등을 결합한 힐링형 모델 구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구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융복합 소득모델을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나주시, 대중교통 대전환 시동 '시민편의 향상'

나주시가 고비용 중형버스 대신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로 순환 운행하는 '소형 마을버스'를 9월부터 본격 운행한다.

현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절감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에 나주시장의 민선8기 대중교통 대전환 공약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간선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오는 20일 1차 공모까지 참가자가 없을 경우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남평읍을 비롯해 동강·공산·다도·금천·세지·봉황·다시·문평·노안면 등 12개 읍·면 소재지와 자연마을을

연결한다.

운영비와 승객 대기시간 절감 등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중형버스를 15인승 소형버스로 교체한다.

나주시는 마을버스와 더불어 빛가람동(혁신도시)엔 수요응답형 '나주콜버스' 도입을 확정된 가운데 면 지역에 시범은행 예정인 마을 택시 운송사업자를 7월 중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원도심과 혁신도시, KTX나주역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노선도 신설해 9월 중 운행한다.

나주=조대봉·박승업 기자

aT,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실시간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와 식품기업의 실시간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홍보콘텐츠 제작과 영상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aT는 농가와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용 상품 이미지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농가 '신품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13일 오후 2시 '하코트·플럼코트', 15일 오후 2시 '블랙망고 수박' 라이브 판매방송을 진행한다.

서울 'aT 스마트 스튜디오'를 비롯해 호남·영남·충청·제주 등 4개 지역거점에 조성한 스튜디오를 운영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올해는 농가 '신품중' 판로개척을 필두로 청년농부, 저탄소농산물 소비 활성화 등 테마형 콘텐츠 제작과 판매방송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이용방법과 비용 등은 온라인 신청 누리집(at-studio.co.kr), 문의는 내수기업(02-6300-2901), 수출기업(02-6300-290)으로 각각 하면 된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